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998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경기 및 산업생산
2. 민간소비
3. 설비투자
4. 건설투자
5. 대외거래
6. 물가
7. 통화·금융

제2장 해외경제

1. 성장
2. 원자재가격
3. 국제금리·환율

제3장 98년 실적과 99년 전망

I. 98년 거시경제실적

1. 성장 및 고용
2. 물가
3. 국제수지
4. 금리 및 환율

II. 99년 경제전망

1. 성장 및 고용
2. 물가
3. 수출입 및 국제수지
4. 금리 및 환율

제4장 최근 거시경제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

1. 최근 거시경제 여건
2. 향후 정책방향

<부록>

1. 경제정책정보
2. 주요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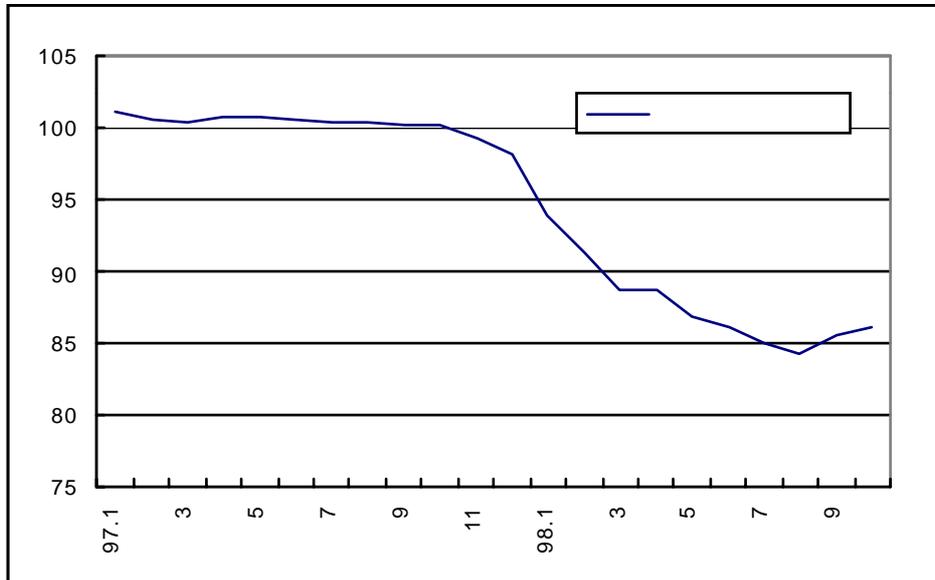
제 1장

국내경제동향

1. 경기 및 산업생산

- 최근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 보면 경기침체의 속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선 현재의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9월과 10월 연속 2개월간 상승세를 보임.
- 6~7개월 후의 경기를 가늠케 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선행지수도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 또한 산업생산 증가율이 9~10월중 -4.1%를 보이면서 감소폭이 한자리 수로 축소되었고 제조업가동률도 소폭 상승하고 있음.

<표 1> 최근 가동률 및 실업률 동향

단위:전년동월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10월
산업생산	-10.8	-1.8	-10.1	-10.9	-10.9	-13.2	-13.0	-11.8	-4.1
평균가동률(%)	67.8	68.8	65.4	68.3	66.7	66.4	63.7	62.9	69.1

자료:통계청

- 부도율과 부도업체수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

<표 2> 최근 부도 동향

	97.10	11	12	97 4/4	98 1/4	98 2/4	98 3/4	10
전국어음부도율(%)	0.56	0.48	2.09	0.80	0.54	0.43	0.41	0.20
전국부도업체수(개)	1,435	1,469	3,197	6,101	9,449	6,357	4,221	1,036

- 그러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데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0월중 도소매판매 13.6%, 설비투자 34.7% 감소하는 등 소비, 투자 등 내수관련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
- 실물경기의 하강속도가 다소 진정되고 잇는 것은 반도체, 선박 등 극히 일부 부문의 생산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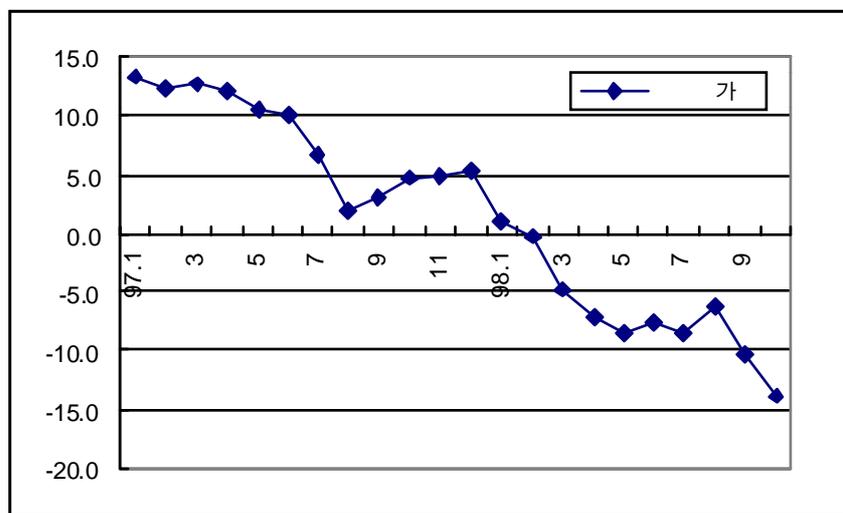
<표 3> 업종별 생산증가율

단위:전년동월비(%)

	98.9	98.10
반도체	72.0	74.0
기타운송장비	30.7	4.2
기계장비	-25.4	-35.3
자동차	-16.4	-27.7
제1차 금속	-10.2	-19.9
의복 및 모피	-34.6	-39.6

· 재고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림 2 > 재고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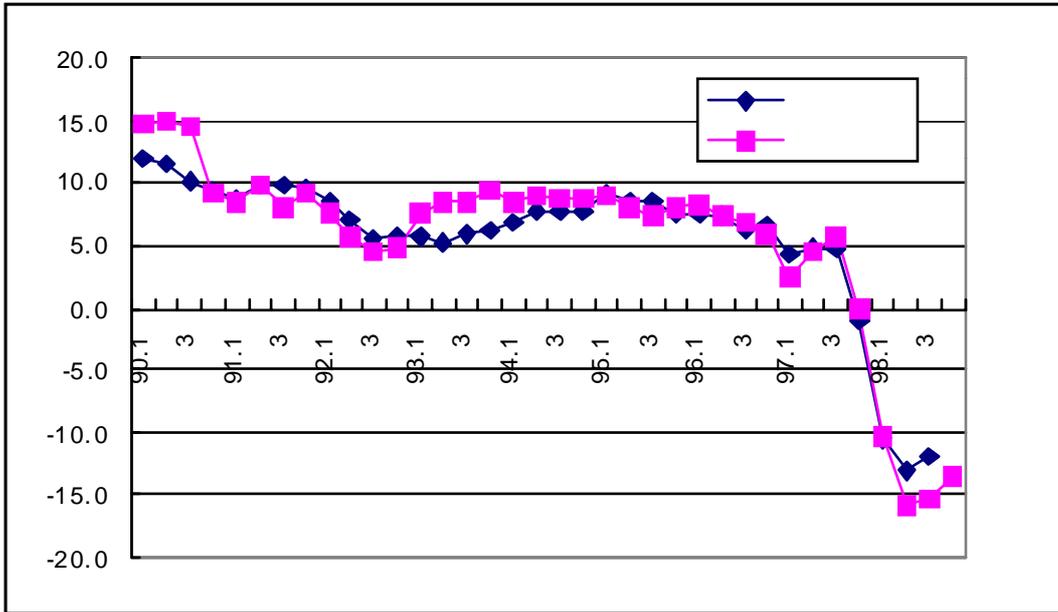


· 또한 5대 그룹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률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계절조정실업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 민간소비

-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위축이 지속되면서 3/4분기중에도 민간소비는 큰 폭(-12.0%)으로 감소.
- 10월중에도 도소매판매(-13.6%), 내수용소비재출하(-25.1%) 등 소비관련지표들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에 따라 소비가 4/4분기중에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그림 3 > 민간소비와 도소매판매 추이



■ 이처럼 소비 위축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 실업급증과 임금하락 외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낮아진데다
- 각 부문의 구조조정 등 경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데 기인.

■ 그러나 감소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3/4분기의 소비감소율이 2/4분기에 비해 1%P 낮아졌으며 10월 도소매 판매액 감소율도 3/4분기에 약 1.5%P가량 낮아졌음.
- 그리고 97년 4/4분기부터 소비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된 점을 감안할 때 금년 4/4분기 민간소비 감소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추정됨.

< 표 4 > 최근 소비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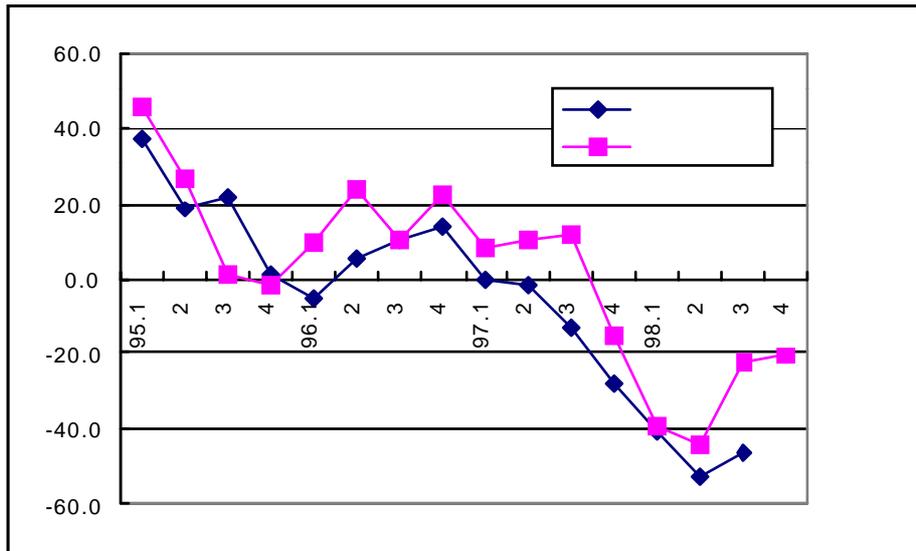
	1997년					199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도소매 판매	2.5	4.6	5.7	-0.1	3.2	-10.4	-15.8	-15.3	-13.6
도매	2.8	3.6	4.2	1.9	3.2	-5.9	-13.2	-10.6	-10.6
소매	6.4	6.5	5.6	0.3	4.5	-9.9	-12.2	-14.2	-13.0
자동차·연료	-8.2	3.7	11.2	-9.0	-0.7	-29.7	-33.9	-35.5	-27.8
내수용소비재출하	-3.5	-0.7	2.7	-4.3	-1.5	-19.7	-26.3	-23.4	-25.1
내구재	-3.5	10.9	16.4	-2.5	5.0	-25.7	-35.0	-34.2	-28.4
비내구재	-3.4	-5.8	-3.1	-5.2	-4.4	-17.1	-21.7	-18.0	-23.4
민간소비	4.2	4.8	4.8	-1.0	3.1	-10.6	-13.0	-12.0	

자료:통계청, 한국은행

9. 설비투자

- 3/4분기 중에도 설비투자는 50%에 가까운 감소율을 보임.
 -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계류투자(-45.1%)와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운수장비투자(-50.4%)가 모두 대폭 축소.
- 이처럼 설비투자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 외환위기로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위축된 데다 기업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생존위주의 경영전략이 불가피했으며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경색이 지속되고 그리고 판매부진에 따른 기업의 현금흐름 경색으로 투자여력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

<그림 4> 설비투자와 국내기계수주 추이



■ 3/4분기에 이어 10월중에도 국내기계수주 등 설비투자 관련지표들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점차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적 성격을 갖는 국내기계수주는 9~10월중에 -20.3%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상반기 -41.9% , 3/4분기의 -22.5%보다 감소폭 축소.
- 9~10월중 기계류내수출하(-37.4%)와 기계류수입액(-53.8%) 등 동행적 성격의 지표들의 감소폭도 완만히 축소.

<표 5 > 최근 투자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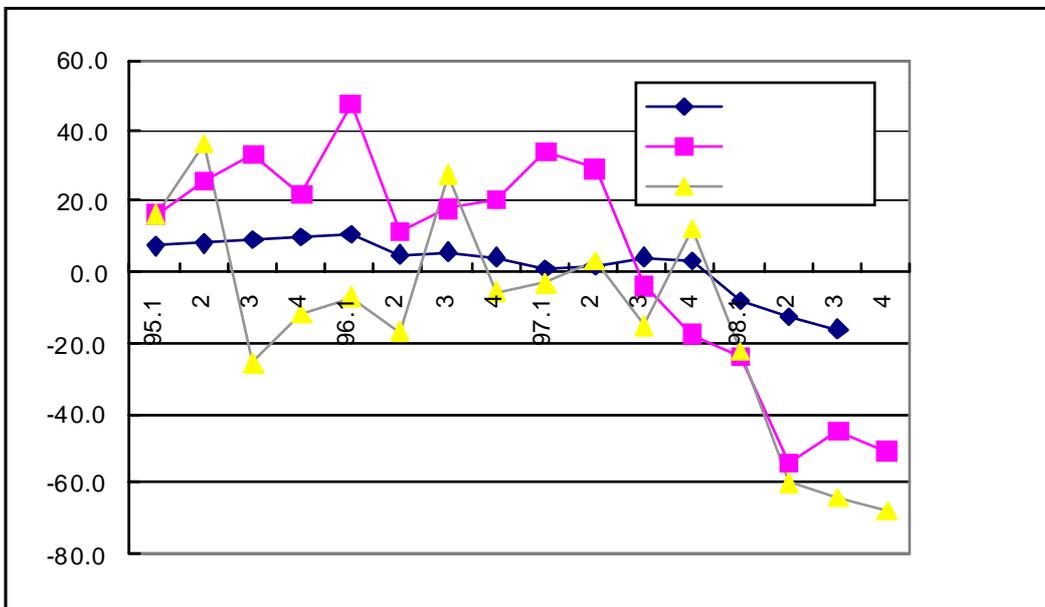
	1997년					199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9~10월
국내기계수주	7.7	10.4	11.3	-15.2	3.3	-39.3	-44.2	-22.5	-20.3
공공	7.3	4.2	29.7	-35.8	-2.5	-66.5	-63.4	-14.4	-26.5
민간	7.8	11.8	8.6	-9.8	4.6	-31.3	-40.0	-23.9	-25.7
기계류수입액	-13.9	0.4	-34.6	-38.2	-22.8	-52.9	-57.4	-55.2	-53.8
설비용기계류내수출하	4.5	7.4	-6.0	-16.0	0.8	-35.0	-46.8	-45.0	-37.4
설비투자	-0.2	-1.8	-12.7	-28.2	-11.3	-40.7	-52.4	-46.3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4. 건설투자

- 1/4분기 중 감소세로 반전된 건설투자는 2/4분기 -13.2% , 3/4분기 -15.8%의 증가율을 보이며 감소세가 확대됨.
- 3/4분기 건설투자가 확대된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건물건설투자가 크게 부진했기 때문.(2/4분기:-12.7%, 3/4분기:-21.1%)

<그림 5> 건설투자와 관련지표 추이



- 9~10월중에도 국내건설수주 등 건설투자 관련지표들이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 성격을 갖는 국내건설수주는 9~10월중 민간부문의 주택, 사무실, 공장·창고 등의 발주부진으로 전년동기비 51.1%감소.
- 주거용을 비롯한 모든 용도의 건축허가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건축허가면적이 70%가까이 감소.

<표 6 > 최근 건설투자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1997년					199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9~10월
국내건설수주	34.4	29.3	-4.3	-17.8	4.7	-24.5	-54.2	-45.0	-51.1
공공	49.6	9.5	-7.5	-5.0	6.3	-7.9	-13.6	-6.7	-12.7
민간	23.6	18.7	-11.8	-37.3	-6.5	-45.0	-66.0	-67.0	-77.7
건축허가면적	-3.4	3.6	-15.1	12.1	-0.4	-22.9	-59.6	-63.8	-68.8
건설투자	0.8	1.8	3.8	3.7	2.7	-7.7	-13.2	-15.8	

자료:통계청, 한국은행

■ 이처럼 건설투자의 감소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 외환위기로 인한 근로소득 및 자산소득 감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수요심리가 위축된 데다
- 신용경색과 미분양아파트 누증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증가하는 등 공급자체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

5. 대외거래

- 10월중 13.1%나 감소하면서 5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던 수출이 11월에는 1.5%증가세로 돌아섬.
- 이처럼 수출이 11월중에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신3저현상에 힘입어 전반적인 수출여건이 개선된데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
- 수입은 감소폭이 둔화되고 월별 수입금액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30%에 이르는 높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이에따라 무역수지가 10월 32억달러, 11월 37억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면서 1~11월중 무역수지는 358.7억달러를 기록함.

<표 7 > 98년 1~11월중 수출입 실적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1/4분기	2/4분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11월
수출(FOB)	32,240	34,840	10,038	9,727	10,862	10,838	12,007	120,551
증가율	8.5	-1.9	-15.0	-11.9	-4.2	-13.1	1.5	-2.6
수입(CIF)	23,660	23,549	7,099	7,119	7,255	7,657	8,340	84,681
증가율	-35.5	-36.7	-43.9	-38.1	-37.2	-39.2	-28.8	-37.0
무역수지	8,580	11,291	2,939	2,607	3,606	3,180	3,667	35,870

자료: 산업자원부

- 10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흑자폭 축소와 소득수지 적자폭이 확대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25.7억 달러에 그침으로써 월 흑자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임.(상반기 평균(36.2억달러), 3/4분기 평균(32.1억달러))
- 상품수지는 수출감소폭이 수입감소폭보다 확대되어 전월에 비해 흑자폭이 축소됨. 수출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추석효과와 작년동기의 수출증가율이 높았던데 기인함.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기술용역대 등의 지급이 늘어 나면서 적자를 보임.
- 소득수지는 대외이자지급이 전월보다 크게 늘면서 적자폭이 전월의 4.3억달

러에서 8.6억달러로 확대.

- 경상이전수지는 해외교포의 국내송금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2.5억 달러의 흑자 기록.

- 자본수지는 9월 IMF자금도입(6.4억달러)과 IBRD자금도입(10억달러)에도 불구하고 외화채권의 만기도래 상환 등으로 9~10월중 17.8억 달러의 유출초를 나타냄.

< 표 8 > 최근 국제수지

(억달러)

	1997년					199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0월
경상수지	-73.5	-27.2	-20.5	39.6	-81.7	108.3	109.1	96.3	27.5	341.1
상품수지	-54.0	-8.1	-0.3	30.6	-31.8	97.0	113.0	104.4	34.5	348.9
서비스수지	-14.4	-10.7	-13.7	6.8	-32.0	5.5	1.1	-2.8	-0.9	2.9
소득수지	-4.2	-8.0	-5.7	-6.8	-24.5	-7.1	-12.6	-10.6	-8.6	-38.9
경상이전수지	-0.1	-0.5	-0.9	9.0	6.7	12.9	7.6	5.3	2.5	28.2
자본수지	40.4	65.7	6.2	-99.1	13.1	-9.7	19.8	-14.6	-1.6	-6.1
직접투자수지	-5.1	-2.3	-6.6	-2.1	-16.1	-3.4	3.4	0.2	2.7	2.9
증권투자수지	25.9	58.3	54.4	4.3	143.0	38.7	5.7	-33.7	-7.4	3.4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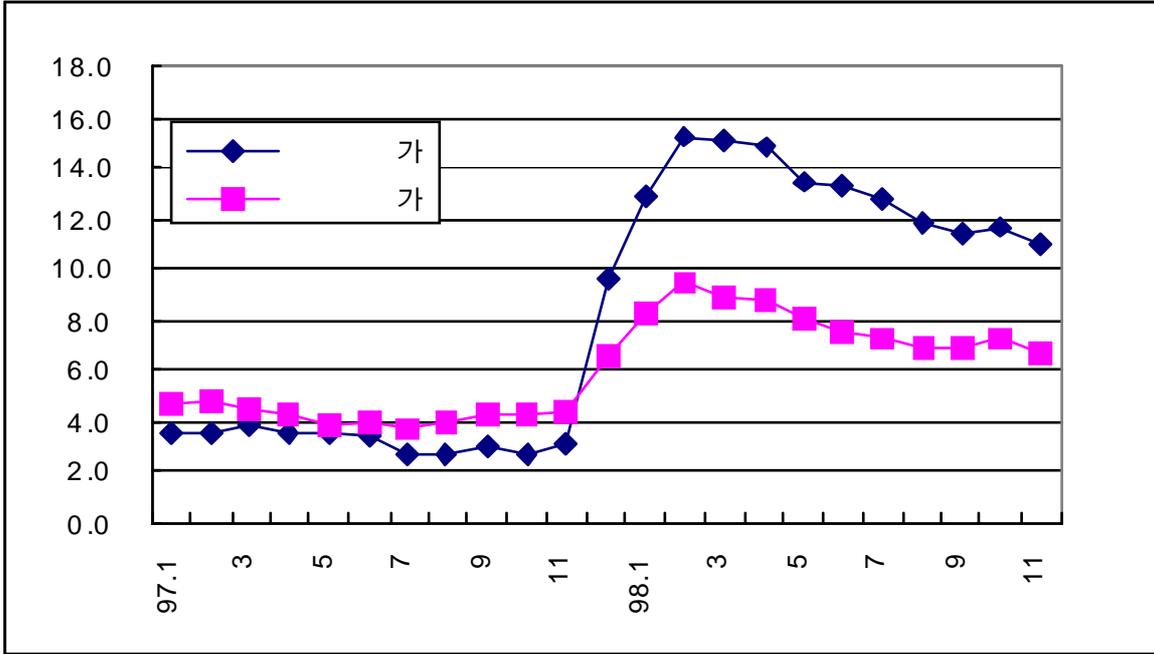
6. 물가

- 10~11월중 소비자물가는 702%, 생산자물가는 11.3%, 상승함에 따라 2월을 정점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가 4/4분기에도 지속됨.

- 10월중에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다소 주춤한 것은 추석요인으로 인한 농축수산물가격이 다소 상승하고, 교통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산품가격이 상승했기 때문.

- 그러나 11월 들어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낮아지고, 환율 및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다시 지속됨.

<그림 6 > 물가상승률 추이



■ 10~11월중 물가를 부문별로 보면

- 수해, 추석 등의 요인으로 소비자물가의 농축수산물 부문과 생산자물가의 농림수산물 부문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물가상승률 둔화추세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임.
- 반면 공산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전력·수도 및 가스 부문은 상승률 둔화추이를 이어감.

<표 9 > 최근 물가 추이

(전년동기비,%)

	1997년	1998년						
	연간	1/4	2/4	3/4	10월	11월	10~11월	1~11월
소비자물가	4.5	8.9	8.2	7.0	7.2	6.8	7.0	7.8
농축수산물	3.8	5.6	5.0	5.2	9.0	8.3	8.2	5.9
공산품	4.3	12.8	12.3	11.0	11.3	10.7	11.0	11.8
공공요금	5.1	9.8	10.7	9.5	8.0	7.8	7.9	9.6
개인서비스	5.3	7.7	5.9	4.3	3.7	3.5	3.6	5.5
생산자물가	3.8	14.4	13.9	12.0	11.7	11.0	11.3	13.1
농림수산물	1.6	-1.1	-0.9	4.4	11.5	13.4	12.5	2.9
공산품	4.2	17.2	16.7	14.6	13.8	12.7	13.3	15.6
전력,수도 및 가스	4.6	18.5	17.2	12.0	10.2	10.2	10.2	14.8

주: ()는 전월비

- 이같은 물가 안정세 지속은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환율의 안정 그리고 극심한 내수부진에 기인함.

7. 통화 · 금융

- 통화지표들은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에 따른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의 영향으로 M2증가율은 상승하고 MCT+증가율을 하락하는 상반되는 추세를 보임
 - 총통화(M2) 증가율의 상승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RP, CD, 표지어음 등 단기시장성 자금이 정기예금등 저축성 예금으로 이동함에 따라, 상승률이 10월, 11월 각각 전년동월비 27.3%, 26.7%로 큰 폭 상승세가 지속
 - 반면 은행권의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MCT+(=M2+CD+금전신탁+표지어음+RP+금융채)의 증가율은 CD발행의 감소와 금전신탁이 투신사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 10월중에 추석요인으로 약 1조6,000억원의 증가를 보였던 본원통화(평잔)는 11월 들어 현금통화의 평잔이 줄면서 약 9,000억원이 감소한 19조 8,000 억원 수준.

< 표 10 > 주요통화지표 증가율

(평균기준, 전년동기대비,%)

	1997년	1998년						
	12월	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본원통화	-5.7	-4.7	-7.5	-7.3	-7.8	-13.2	-0.9	-5.7
M2	21.1	13.7	18.1	20.0	20.8	21.4	27.3	26.7
MCT+	18.4	12.8	10.0	9.0	7.1	5.1	4.8	2.9
M3	15.9	14.5	14.2	14.0	14.0	13.2		

■ 장단기금리가 모두 한자리 수로 크게 낮아짐.

-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금리(RP단기물 기준)가 7%이하로 크게 낮아지면서 콜금리 및 CP유통수익률 등 단기금리도 6% 후반~8%초반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
- 국고채, 회사채 등 장기금리도 미국의 추가금리인하(11.17일) 이후 선진국들의 금리인하로 내외금리차가 축소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7~8%대로 낮아짐.

< 표 11 > 주요 시장금리 추이

	98.6말	8말	9말	10말	11.17	11말	12.8
콜(익일물,%)	14.41	8.51	7.08	7.00	7.02	7.08	6.96
CP(91일물,%)	16.99	10.91	10.78	8.06	8.06	8.06	8.06
국고채(3년물,%)	14.00	11.30	11.50	8.50	8.45	8.10	7.30
회사채(3년물,%)	16.00	11.70	11.90	10.00	9.90	9.25	8.50

자료: 한국은행

-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과 사상최고의 가용외환보유고 등 공급우위의 시장상황이 지속되면서 원화는 꾸준히 절상되고 있는 추세. 게다가 엔화가 달러당 110 엔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가치상승에 기대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는 것도 원화가치가 상승의 단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표 12 > 대미달러 원화환율

	1997년	1998년							
	12말	2말	6말	7말	8말	9말	10말	11말	12.8
환율(원/\$)	1415.2	1640.1	1385.2	1236.0	1331.8	1373.6	1319.0	1246.0	1219.0
절상률(%)	-40.3	-13.7	2.2	14.5	6.3	3.0	7.3	13.6	16.3

제 2 장 해외경제

1. 심장

- 1999년중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낙관적이지 못함
 - 아시아 및 러시아 통화위기의 여파와 중남미 경제의 불안이 더욱 확산될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 경제도 큰 영향을 받아 세계경제 성장률은 1%에도 못 미칠 전망(J.P.M.)
 - 미국, EU 등 선진국간 정책협조 강화로 신흥개도국 금융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경우에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2%대에 머물 전망(WEFA, IMF)
- 선진국의 경우, 각종 경기부양대책과 금융안정조치 등의 영향으로 일본경제가 미미하나마 정(+)의 성장을 이룰 것이나 아시아·중남미 경제불안 등의 영향으로 미국경기의 후퇴와 EU경기의 둔화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표 13>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1997	1998 ^{e)}			1999 ^{e)}		
		IMF	WEFA	J.P.M.	IMF	WEFA ²⁾	J.P.M.
세계경제 성장률	4.1	2.0	1.7	1.6	2.5	2.7(0.5)	0.9
선진국	3.1	2.0	2.1	1.8	1.9	2.1(-0.1)	0.8
미국	3.9	3.5	3.4	3.4	2.0	2.4(-0.8)	0.1
일본	0.8	-2.5	-2.4	-2.7	0.5	0.4(-1.5)	0.7
EU ³⁾	2.7	2.9	2.7	2.9	2.5	2.4(1.6)	1.7
신흥시장국	5.8	2.3	..	0.7	3.6	..	1.3
아시아 ⁴⁾	3.7	-10.4	-4.1	..	-0.1	1.1(-2.0)	..
중남미	5.1	2.8	2.1	..	2.7	2.8(-1.0)	..
체제전환국	2.0	-0.2	-0.2
세계교역 성장률	9.7	3.7	4.1	4.0	4.6	5.0	3.0

주: 1) 실적치는 IMF 기준 2) ()내는 세계 경기침체 시나리오의 전망치임
 3) WEFA는 서유럽 17개국 기준 4) IMF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기준, WEFA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 8개국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9.
 WEFA, World Special Report, 1998.9.14.
 World Economic Outlook, Fourth Quarter 1998.
 J.P. Morgan, World Financial Markets, Fourth Quarter 1998.

- 개도국의 경우, 아시아 경제가 0% 내외의 성장으로 다소 회복될 것이나 중남미 경제는 금년에 이어 2%대의 낮은 성장을 보일 전망
- 러시아를 비롯한 체제전환국 경제의 경우, 금년에 이어 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가. 미국

- 미국 경제는 아시아·중남미 경제불안의 영향 및 노동비용 상승 등에 따른 기업수익 감소, 국내수요 둔화 등으로 1999년중 성장률이 1.5%에 그쳐 금년(3.5%)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

<표 14> 미국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나. 일본

- 일본 경제는 각종 경기부양대책과 금융안정조치 등의 영향으로 1999년부터 성장률이 정(+)으로 돌아서겠으나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침체 지속으로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됨으로써 1999년중 0.2%의 미미한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

	1996	1997	1998			
			1/4	2/4	3/4	
실질GDP 성장률	3.4	3.9	5.5	1.8	3.3	
경상수지(억달러)	1996 -1,482	1997 -1,609	8월 -4729	1998 5월 -565	11월	
<원가상승> 소비자 물가상승률	3.0	2.3	1.5	1.6	1.7	
WTI(\$/배럴)	25.95	17.60	13.34	16.15	14.44	12.17
Dubai(\$/배럴)	21.76	15.21	12.55	14.08	12.34	11.64
<기타 원자재가격>						
옥수수(센트/부셸)	258.3	265.0	187.3	209.0	219.0	220.0
소맥(센트/부셸)	381.3	325.8	237.5	269.3	294.3	285.5
동(\$/MT)	2,275.5	1,712.5	1,624.5	1,612.5	1,577.5	1,589.5
알루미늄(\$/MT)	1,499.0	1,524.0	1,316.5	1,303.5	1,293.0	1,296.5

<표 15>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다. EU

	1996	1997	1998		
			1/4	2/4	3/4
실질GDP 성장률	3.9	0.8	-1.3	-3.3	
경상수지(억엔)	71,716	114,363	36,373	40,231	44,407
소비자 물가상승률	0.1	1.8	2.0	0.3	-0.2

■ Euro 지역 국가들은 아시아·중남미 경제불안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금년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이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국내수요가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1999년중 2.5%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1996	1997	1998			
			8월	9월	10월	11월
<미국 국내금리>						
재할인율	5.00	5.00	5.00	5.00	4.75	4.50
단기채정증권	5.01	5.23	4.90	4.36	4.33	4.46
장기국채	6.54	5.97	5.31	4.98	5.15	5.22
<여타 주요국 금리>						
일본 재할인율	0.50	0.50	0.50	0.50	0.50	0.50
독일 재할인율	2.50	2.50	2.50	2.50	2.50	2.50
영국 기준금리	6.00	7.25	7.50	7.50	7.25	6.75
<유로시장 금리>						
유로 달러	5.56	5.81	5.59	5.31	5.22	5.25
유로 엔	3.13	1.00	0.84	0.72	0.75	0.75
유로 마르크	0.56	3.66	3.31	3.56	3.38	3.44
유로 파운드	6.56	7.63	7.75	7.38	7.19	6.88

2. 원자재가격

■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은 금년중의 대폭 하락에 따른 반사효과와 공급과잉 현상의 일부 해소 등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그러나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수요부진에 따라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표 16>유가 및 원자재 가격

자료 : 한국은행

3. 국제금리, 환율

■ 1999년중 미국과 독일 등 EU 국가의 금리는 신흥개도국 금융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증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미 초저금리 상태에 있는 일본금리는 금년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 엔화 환율은 미달러화에 대해 1999년 2·4분기 전후까지 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표 17>국제금리

자료: 한국은행

	96.12	97.12	98.8	98.9	98.10	98.11
US\$/SDR	1.4352	1.3493	1.3422	1.3713	1.4084	1.3905
¥/US\$	116.00	129.94	141.50	135.65	116.05	120.16
DM/US\$	1.5556	1.7921	1.7645	1.6757	1.6543	1.6883
US\$/£	1.6909	1.6551	1.6765	1.6987	1.6735	1.6556
FFr/US\$	5.2007	5.9975	5.9051	5.6162	5.5452	5.6633

- 미국 단기금리(3개월 만기 재정증권 수익률 기준)는 경기둔화에 대응한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로 금년의 4.7%에서 1999년중에는 3.8%로 크게 낮아질 전망
- 일본은 이미 초저금리 상태에 있으나 경기부양과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팽창적인 통화정책으로 단기금리(3개월 만기 CD 유통수익률 기준)가 1999~2000년중 0.5%로 금년(0.7%)보다 더욱 낮아질 전망
- Euro 지역 국가의 단기금리(3개월 만기 은행간 금리 기준)는 내년초 유럽통화동맹(EMU) 출범 이후 상반기중에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다소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의 3.9%에서 1999년중에는 3.0%로 낮아지고 2000년중에도 3.1%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표 18> 동남아시아 각국 환율

자료 : 한국은행

제 3장

98년 실적과 99년 전망

I. 98년 거시경제실적

1. 성장 및 고용

— 2/4분기(-6.8%)에 이어 3/4분기(-6.8%)중에도 크게 감소한 국내 총생산(GDP)은 4/4분기중(-5.8%) 수출과 내수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98년중 경제성장률은 -5.8%내외에 그칠 전망

○ 5월이후 전년동월비 감소세를 지속해온 수출이 11월중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연간실적은 지난 해보다 2~3%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6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채택한 이래 연간실적으로는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할 전망.

* 해외수요의 감소와 수출단가의 하락이 주요인이나 금융경색과 차별적인 무역금융 등 정책요인도 수출제약요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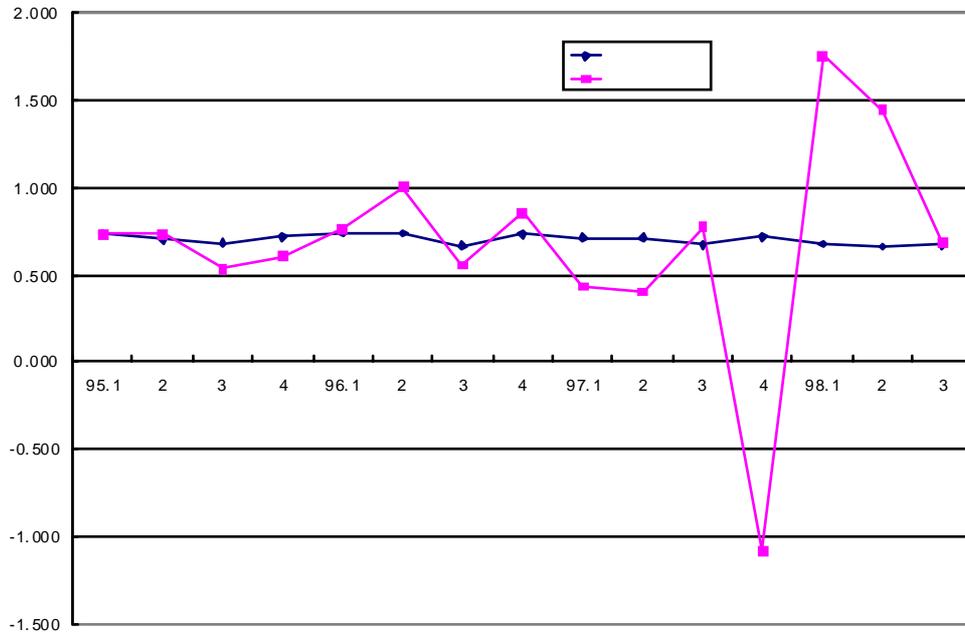
* 예컨대, 3/4분기중 다각적인 수출입관련 금융지원방안이 발표되었으나 일선창구에서 시행되기까지는 다소의 시차가 있으며 높은 적용금리와 각종 수수료의 과다 및 관련 규제의 존치로 연내 수출증대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내수부문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4/4분기이후 급격한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장률 하락을 주도하는 부문으로 작용하고 있음

* 3/4분기중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평균소비성향과 같아져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요인은 제거되었다고 판단되나

금리인하로 인한 자산소득의 감소, 실업증가와 명목임금 감소의 지속 등으로 소비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그림 7> 소비성향



* 특히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액이 상반기중 -41.1%, 3/4분기 -45.0% 그리고 10월중에는 -50.3% 그리고 건축허가면적은 상반기 -44.3%, 3/4분기 -63.8% 그리고 10월중 79.9%로 하반기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어 향후 건설투자의 추가하락을 예고하고 있음.

* 설비투자는 97년 -11.3%, 98년 상반기 -47.0%, 3/4분기 -46.3% 감소에 이어 4/4분기중에도 기업들은 설비투자계획을 하방 수정하고 있어 98년간 44.8%내외의 감소 예상

—수요부진으로 산업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고용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실업대책에 힘입어 4/4분기중에도 실업률은 7%대(계절조정 8%대)를

유지할 전망

- 대졸 인턴직원의 채용권고, 공공근로의 확대 등으로 실업자수는 7월이후 지속적 감소 추이를 보임.

2. 물가

- 98년중 물가 상승률은 1/4분기를 정점으로 차차 낮아지고 있으나 대폭적인 환율절하에 따른 과급효과로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91년 버블형성기이후 가장 높은 수준(7.2%)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내수침체로 수요압력이 낮아지고 에너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여 2/4분기이후 물가상승압력은 크게 낮아짐. 최근 각종 세율의 인상과 수해로 인한 일부 농산물가격의 급등 등이 9월이후 물가반등요인이었음

- 수입원자재비중이 낮은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7.8%에 그칠 것이나 수입원자재의 비중이 높은 생산자물가는 13%수준으로 예상

3. 국제수지

- 상반기중 무역수지의 대폭흑자에 힘입어 217억달러를 상회한 경상수지 흑자는 3/4분기중 수출부진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4/4분기중 수출규모 확대로 연간 흑자폭(405억불)은 400억불을 다소 상회할 전망
- 97년 31.8억불의 적자를 기록한 상품수지는 올 상반기중 210억불 흑자로 반전하였으며 하반기중에도 208억불내외의 흑자가 예상됨으로써 연간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418억불에 달할 전망. 이는 3/4분기중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11월이후 월간수출이 120억불을 상회함에 따른 것임.

○ 지난 해 4/4분기의 수입급감을 반영, 98년 4/4분기중 수입감소율은 28%내외에 그칠 것이나 연중 지속된 경기침체, 소비 및 투자 위축에 따라 연간 수입감소율(35.5%)은 전년비 35%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 수출은 전년동기비 원화환율의 절하효과가 경쟁국 환율의 절하로 인해 반감되고 동남아, 일본 등에 대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10월이후 자동차와 반도체의 수출이 다시 늘고 있어 연간 수출은 전년비 3%내외의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 상품수지의 대폭 개선과는 달리 서비스 및 이전수지의 적자추이는 98년중에도 이어질 것이나 적자규모는 10억불 내외의 소폭 적자에 그칠 전망이다. 단기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의 증가로 투자수익의 적자가 예상되나 여행수지의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무역외수지는 97년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4. 금리 및 환율

가. 금리

- 연초 긴축통화정책기조가 설정됨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에서 1/4분기중 18~20%의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었으나 2/4분기이후 외환시장의 안정에 따라 다소 낮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조달금리가 해외조달금리를 하회하는 금리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하반기중에도 지속됨.

○ IMF와 정책당국은 유동성(본원통화 및 M3)을 조절하는 통화긴축정책을 지지하여왔으나 외환시장안정과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에 따라 통화공급과 재정적자확대를 기조로 거시정책변수의 목표를 수정.

*최근 IMF와의 정책협의과정에서 98년과 99년의 재정적자폭을 GDP의 5%수준으로 하고 본원통화 공급목표는 설정하지 않기로

합의함.

○ 회사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시장실세금리는 2/4분기이후 외환 시장안정기조에 따라 12%내외를 유지하였으며 한국은행의 R/P 금리인하(7%)에 따라 3/4분기중 9% 그리고 12월중에는 8%대에 진입하는 등 점진적 인하추이를 보임.

나. 환율

- 3월이후 외환시장은 공급우위로 변하면서 환율은 1300원/\$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음. 하반기들어 엔고추이와 해외여건의 불안정에 따라 9월들어 일시적으로 소폭의 절하추이를 보이기도 함. 그러나 실질실효환율에 비추어 원화가치는 다소 절하되어 있으며 경상수지흑자와 물가안정 그리고 외자유입의 지속에 따라 추가적인 절상 가능성이 상존함.

○ 본원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을 기준으로 한 원화의 균형환율은 11월말 현재 1,120원/달러내외로 평가됨.

○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의 구체적 윤곽이 잡히고, 경상수 흑자가 지속되면서 국내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고 있으며 4/4분기이후 외자유입이 늘기 시작함에 따라 빠르게 원화환율의 실질실효환율수준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Moody's는 원화표시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여 발표

II. 99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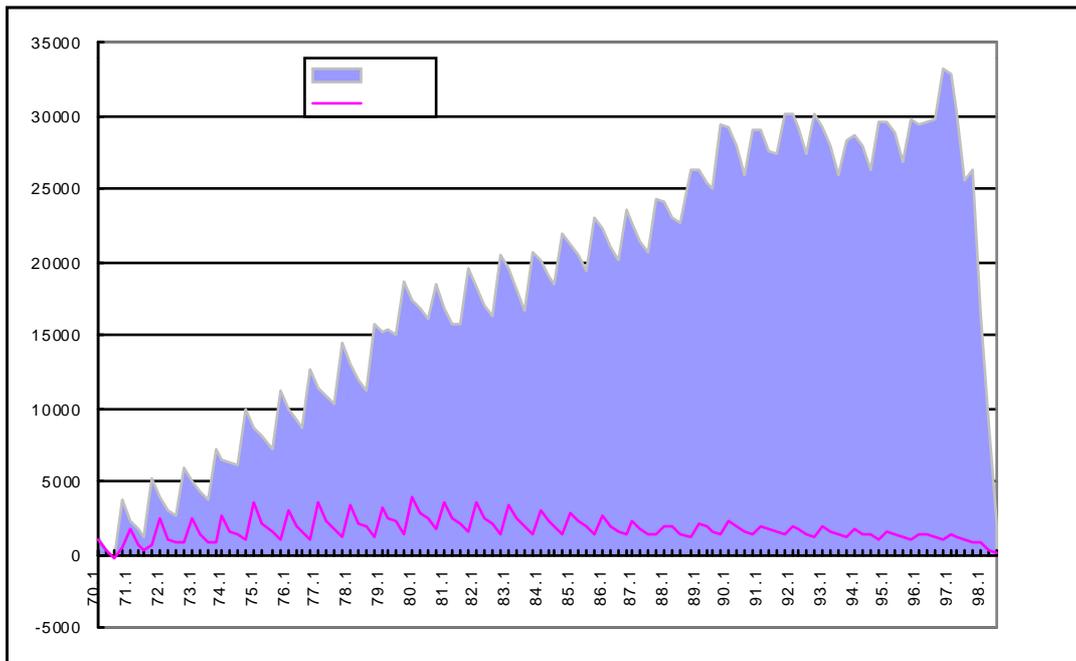
1. 성장 및 고용

— 98년중 사상최저의 경제성장률(-5.8%)이 예상되나 99년 하반기 중에는 썩(-)의 성장률을 탈피하여 연간 성장율이 0.2%내외에 달

할 전망

- 4/4분기중 성장률은 최근의 수출증가와 내수감소의 둔화추세에 힘입어 -5.8%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전분기대비로도 아직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어 경기저점을 판단하기는 이름.
- 수요감소속도는 현저히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재고감소율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상반기중 산업생산의 급격한 증가세는 기대 되지 않음.

< 그림 8 > 재고 추이



—산업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99년 상반기중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내외에 달할 전망

- 기업구조조정 노력의 가시적 결과는 상반기이후 본격화될 것임에 비추어 상반기중 실업자수가 최대에 이를 전망

○ 특히 신규대출자가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3월 이후 실업자는 200만명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하반기중 일단락되더라도 수출 및 내수 부진과 실업 증가로 인한 실물부문의 위축이 99년중에도 현저히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방어적 대출자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최종수요 부문별로 보면, 99년중 각 부문이 98년중 지속되었던 감소세가 둔화되고 하반기에는 일부 부문은 미미하나마 수요증가세로의 전환이 기대됨. 그러나 연간으로는 재고를 제외한 최종수요부문이 전년수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견인에 의한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은 2000년이후에나 시현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국제수지 기준)은 98년에 비해 소폭(1.4%)의 증가가 예상됨.

*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원화의 절상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단가는 소폭의 하락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단가하락세의 둔화로 물량기준 수출은 98년중 약16%수준에서 99년중에는 4%미만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 아시아 통화위기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경제성장의 둔화와 남미경제의 침체 조짐 그리고 미국경제의 둔화 등이 향후 수출시장여건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음

- 소비부문은 실질임금의 감소와 고용불안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이 안정되고 98년 3/4분기 이후 소비심리가 다소 안정됨으로써 99년3/4분기 이후에는 미미하나마 소비지출의 회복세가 예상된다.
- 설비투자는 내외수요의 현저한 개선전망이 불투명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99년중 집중됨에 따라 99년중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 전경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99년중 98년중 하방수정된 시설투자계획대비 16%의 투자감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를 선도해왔던 5대기업의 경우, 99년말까지 부채비율200%달성을 위한 기업의 현금흐름상 투자를 늘리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98년 4/4분기중 크게 감소한 건설투자는 재정투자의 집중이 예상되는 99년 상반기중에도 큰폭의 감소가 예상됨. 건설투자규모는 상반기중 약 13.6% 감소하겠으나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되어 6.5%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 정부는 연간 재정투자예산 30조원중 2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있음.

2. 물가

— 98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차차 낮아지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세는 99년중 평균 2.0%에 그칠 전망이다.

○ 99년중 환율변동폭이 작아지고 국제원자재가격과 임금 등 각종 비용요인이 안정되는 외에 재고를 제외한 총수요도 지속적인 위축이 예상되어 물가상승압력은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연평균환율은 1250-1150원/\$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재고증감을 제외한 GDP는 여전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수요는 물가상승압력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

3. 수출입 및 국제수지

- 98년(405억불)에 이어 99년(320억불)에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됨.

○ 예상되는 외채이자지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의 흑자(360억불)에 힘입어 98년에 이어 99년에도 큰 폭의 흑자예상.

- * GDP대비 경상수지는 98년중 13%수준에서 99년중에는 10%내외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
- 투자감소세의 완화와 하반기중 소비지출의 증가세로의 반전 등에 따라 수입증가가 8.4%에 달하고 수출은 해외수요의 부진과 무역마찰의 증가 등으로 1.4%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수지는 360억불내외로 전년비 약60억불의 감소가 예상됨.
- * 수출은 해외수요의 부진과 원화절상추세의 지속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할 전망. 과거 몇 년간 마케팅노력을 확대했던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수입수요가 99년중 부진할 전망이나 이를 대체할 선진국시장으로의 수출선 전환이 여의치 않을 전망
- * 수입은 비내구성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을 중심으로 8%내외의 증가 예상.
- 상품수지의 대폭 개선과는 달리 서비스 및 이전수지의 적자추이는 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의 증가로 투자수익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99년중 더욱 확대되어 40억불 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4. 금리 및 환율

가. 금리

- 98년 12월현재, 8%대로 하락한 실세금리(3년만기 회사채수익률)는 99년 상반기중에도 별다른 상승요인 없이 하향추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조달금리가 해외조달금리를 하회하는 금리역전현상이 하반기중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9월이후 정책당국은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총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
- * 정부는 단기금리는 5%수준, 회사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실세금리는 7%수준으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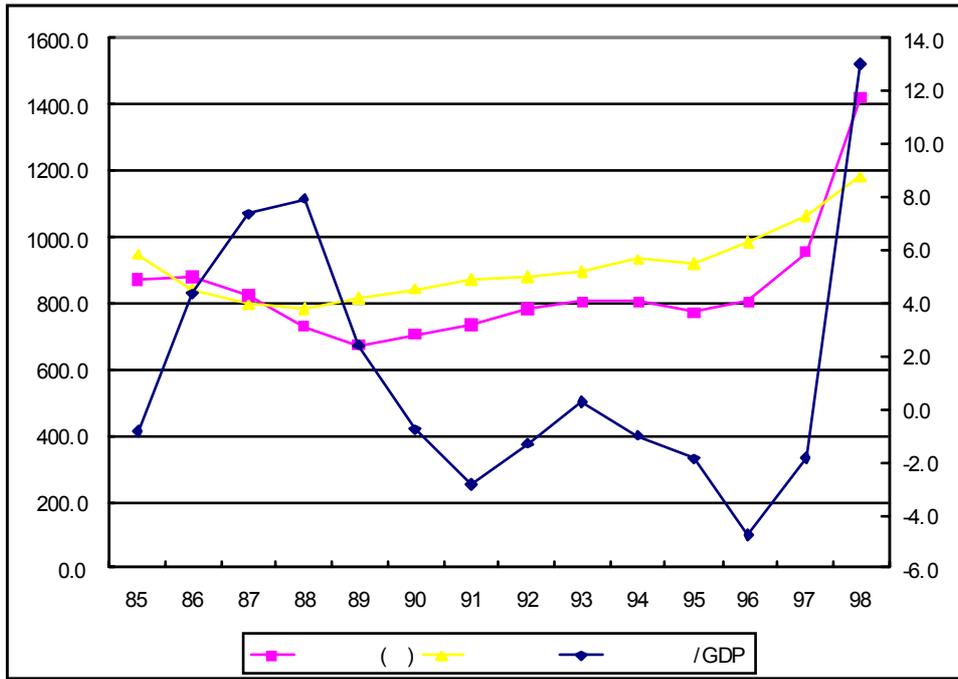
- 외환시장에서도 엔화강세하에서 원화가 동반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 * 1000원/100엔수준을 중심으로 원/엔환율이 유지됨.

- 단기금리를 포함한 시장실세금리는 외환시장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한, 당분간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 * 정책당국은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금리인하를 통해 급격한 절상압력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율 및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외자의 유입증가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나. 환율

- 98년말 환율은 1200원/\$내외로 예상되며 99년중에는 실질실효환율에 접근할 것으로 보임.
 - 본원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을 기준으로 11월말 현재 원화의 적정환율은 1,120원/달러내외로 평가됨.
 - 다만,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지연,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축소 및 해외경제여건의 악화 등 돌발악재가 출현하는 경우, 외자유입이 다시 유출로 바뀌고 원화환율은 절하로 반전될 수 있음.
 - 대외신인도의 조기회복을 통해 외국인주식투자 한도의 철폐, 채권시장개방 등이 이루어지고 금융시장의 경색이 신속히 풀리는 경우, 원화환율은 99년 상반기 중 실질실효환율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

< 그림 9 > 환율과 경상수지



제 4장

최근 거시경제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

1. 최근 거시경제 여건

가. 대외경제여건의 호전

- 최근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등 이른바 신 3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미연방기준금리는 9.30이후 3차례 인하하여 0.75% 포인트 인하. 주요 선진국들도 정책공조를 이루어 금리인하에 동참
 - 달러당 140엔대까지 떨어졌던 엔화 가치가 강세로 전환되어 최근에는 110엔까지 근접
 - 산유국의 대규모 생산과 국제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이하로 떨어짐
- 이러한 호전된 여건을 최대한으로 이용, 내수 및 외수의 진작을 기함으로써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함
- 위기탈출이라는 긴박성의 측면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신 3저의 호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활용하여야 하는 시기적인 절박성이 있음

나. 빅딜 등 대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 그동안 표류하던 5대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결말이 12. 7일 정·재계 간담회를 통하여 일단락되었음
- 그러나 5대 기업 구조조정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
 - 5대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에 세워졌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단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5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맞교환의 실제 집행에서는 부채 및 자산의 평가문제, 고용조정 등 현실적인 많은 문제점 때문에 그 진척이 미진할 가능성도 높음

- 한편, 사업 맞교환의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임
 -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의 기업정리차원에서는 과다투자의 해소, 중복인력의 완화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임
 - 그러나 일부산업의 독과점 폐해, 대규모 신규사업 진출 불가, 시너지 효과 상실 등의 부작용도 대두될 전망
- 그리고 5대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대상기업들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회수 등으로 기업자금시장이 위축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의 신용경색현상이 재연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음

다. 경제지표의 회복현상

- 경제성장, 산업생산, 소비동향 등이 금년초의 극심한 침체에서는 벗어났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3사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8%로서 2사분기와 같은 수준을 보였음
 - 산업생산지수는 9월중 전년동기대비 0.1% 증가에서 10월에는 마이너스로 전환(-8.0%)
 - 도·소매판매는 9월의 -11.9%(전년동기대비)에 이어 10월에도 -13.6% 기록
- 향후 경기회복 양상에 대하여 V자형, U자형, L자형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금년초 우리 경제가 겪었던 경제위기의 심대함을 감안한다면 V자형 또는 U자형의 경기회복 가능성은 낮아보임

2. 향후 정책방향

가. 대외경제여건을 활용한 수출촉진책의 강화

- 신 3저로 불리는 대외경제여건을 최대한 빨리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임
- 낮은 원화가치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현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출의 증

대가 이루어져야 함

- 앞으로 해외 주요 교역국의 경제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함에 따라 현재의 호기를 실기하게 된다면 경기회복의 동인을 놓칠 가능성이 큼

나. 내수진작책의 조속한 실시

- 환율인하로 인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임(11월중은 제외)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인 수출증가세 유지는 쉬운 과제가 아님
- 특히 내년에는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능하며 우리 수출품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도 줄어들 예상임
- 이러한 수출시장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경제회복의 고리를 전적으로 수출에서만 찾는 것은 곤란함. 따라서 국내 수요를 진작할 필요성이 높음
-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SOC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내 수요 및 고용 기회 증진을 꾀하여야 함
- 특히 IMF위기이후 가계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하여 국내 내수시장이 장기간 위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저축을 무조건적으로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완화하고 건전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운동이 필요함

다. 구조조정작업과 경기회복의 상충관계 해소

- 경기회복 이전에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정책기조가 현재의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구조조정 우선의 입장은 부실 및 한계 기업의 퇴출을 강조하면서, 만약 지금 긴축완화 정책을 펼칠 경우 경제위기가 지속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
- 그러나 부실채권의 정리, 주식시장을 통한 증자 등은 기실 경제 전반의 경기, 자산 및 주식시장의 회복 등에 기본적으로 결정될 것임
- 따라서 경기회복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정책

태도는 시정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은 구조조정 작업을 위하여 거시적 정책수단보다는 미시적 정책수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즉,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한 상품시장의 경쟁촉진정책, 금리차등화를 통한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선택 기능강화, 이사회 및 감사제도 강화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미시적인 정책수단을 통해서만 구조조정 작업이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은행 구조조정 및 정상화 노력은 강도있게 빨리 시행되어야 함. 금융시장의 정상회복은 경제활동의 복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임
- 그리고 자산가격의 광범위한 상승 조짐이 보일시에는 신중한 유동성 조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경제정책정보*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9/1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한도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5%에서 3%로 인하 현행 5조6,000억원에서 7조6,000억으로 증액 - 증액되는 총액대출한도는 전액 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 등 총액한도지원 대상자금 순증분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대출확대를 유도(9.1일 시행)
9/8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하반기 국채발행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규모는 13.9조원 - 현행 국채인수산을 통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시자 실세금리 반영하여 발행
9/11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은증권(주)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연장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9.12일부터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제31조 규정에 의한 금감위의 경영개선계획 승인여부 결정일까지 연장 ○ 평화, 강원, 충북은행의 자본금 감소 인가
9/12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증권회사가 1월이내에 수정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금감위가 1월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제도] 폐지
9/16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금리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인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장기물 RP매입 실시 -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단순매입
9/17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중 물가안정목표: 9% ± 1% - 하반기중 M3증가율: IMF와 합의한 예시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9/25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촉진을 위한 벤처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대출취급실적이 많은 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우대하여 배정
9/30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시장조작금리 인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0일부터 공개시장조작금리 인하를 통하여 현재 8%수준인 콜금리를 7%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였음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0/1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금융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수출을 무역금융 용자대상에 포함,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용자대상품목 제한 철폐, 해외건설 용역수출금융 지원대상에 비계열대기업 포함, 매90일로 되어있던 용자한도 산정주기 폐지 ○ 98.4/4분기 통화신용정책방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경제의 과도한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리의 하향안정화기조를 유지하고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
10/3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은행 제2차 구조조정차관 도입 합의내용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조건: 제1차 구조조정차관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20억달러 • 만기: 5년거치포함 15년분할상환 • 이자율: LIBOR + 0.75%
10/7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소의 지점전환 및 지점의 출장소전환 허용 - 업무용 고정자산비율의 산정방식 개선 - 해외소재 점포의 대손상각 승인 예외인정 등
10/8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수출입은행(JEXIM)이 한국에 차관 지원 합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30억달러 - 금리: OECD상업참고, 금리(현재 연2.3%수준) - 만기: 8년(거치기간포함)
10/10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방페레그린증권 등 4개사에 대한 증권업 등 허가취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9일 동방페레그린(주) 및 장은증권(주)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였으며, 재정부장관에게 상기 2개사와 한남투자증권(주), 한남투자신탁운용(주) 등 총 4개사에 대한 허가취소를 요청하였음
10/15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K-WIRE를 통한 증권, 대금 동시결제(DVD)제도 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 결제위험을 제거하고 국제표준방식의 지급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예탁원과 공동으로 BOK-WIRE를 통한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를 도입키로 함 - 1단계로 채권거래에 대하여 내년 상반기중 도입하는 한편 주식거래는 제반여건을 보아가며 추진시기를 결정키로 함
10/16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6말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건전성이 불량한 부산·경남은행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하여 부실자산 감축 등을 포함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12.16일까지 제출토록 함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0/18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보증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근보증의 취급 금지, 기업고용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금지 - 99.1.1이후 신규취급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취급분은 보증유효기간을 99.12.31까지로 함
10/21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인센티브 대폭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달은행에 대한제재 강화 및 유인 확대 - 중소기업 수출입금융 지원 및 만기연장 우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무역금융 지원 확대
10/21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준칙]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대상: 공정거래위 지정 30대 대규모기업집단 -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 - 시행일: 99.1.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10/28	은행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예대상계 실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에 대하여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모든 예.적금과 대출금예대상계(중도해지포함)를 2개월동안 실시토록 지도 - 정리기간: 98.11.2~12.31 - 적용금리: 예치기간별 최고 약정금리
10/30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와 4/4분기 협의 주요내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 금리 재정 등 거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경기회복을 적극 지원 • 외환부문의 안정을 바탕으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 거시정책의 신축성관련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완화정책과 저금리정책을 지속 • 종래 의향서에 예시적 한도로 포함되던 본원통화한도를 금번부터 삭제하고 충유동성도 구속성없는 전망치로 변경 - IMF는 12월초경 이사회를 열어 금번 협의한 한국경제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서를 검토하고 10억달러규모의 자금지원을 승인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로써 총 지원예정액 210억달러중 190억달러가 지원되게 됨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1/2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RD자금을 활용한 벤처기업 특별보증지원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금번 신용보증기관에 추가출연 예정인 IBRD자금중 3억달러는 회생가능한 유망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우선 활용 - 추진방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배정자금중 2억달러를 현재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고 있는 [벤처기업지원 특별보증재원] 등으로 전담 활용 - 이와 별도로 신규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출연배정자금중 1억달러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지원 특별보증재원]으로 전담 활용 - 운용방안: 기존의 특별보증여력 및 금번 IBRD자금 배정금액중 벤처지원 전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11월부터 특별보증금액의 일정비율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우선 지원
11/9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신용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신용은행은 98.9월말기준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은 3등급이상이나 자산건전성부문 평가가 4등급이하로 나타나 동은행에 대하여 무수익여신 감축, 자기자본 확충, 내부통제운영개선 등을 포함하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림 - 앞으로 장기신용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을 98.12.10까지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1/11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11.17일 시행)
11/13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은행의 자본금 감소 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은행은 98.10.15일 주주총회에서 500억원의 자본금을 현행 은행법상 지방은행의 최저자본금인 250억원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금 감소인가를 금감위에 신청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98.11.13일 동행의 자본금 감소를 인가함
11/14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11.16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개정내용 반영 ● 규제개혁위원회와의 규제완화 협의사항 반영 ● 위탁회사의 경영공시제 도입 ● 비상장채권의 시가평가제 도입 ○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98.9.16일자로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감위에 위임된 사항과 금융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보유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11.14일 시행)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1/25	한국은행	<p>○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획기적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6~11.7일 실시된 총재와 금통위원들의 중소기업 현장점검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중소기업 자금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한 종합평점제를 금년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반영토록 하였음 -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퇴출은행거래 중소기업 등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총액대출한도의 지점별 한도를 2,000억원 증액키로 하였음

주요 경제통계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GDP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공고업무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1992년	5.1	5.1	7,007	6.6	7.6	-0.0	-1.1	-0.6
1993년	5.0	5.0	7,404	5.7	3.0	5.2	-0.1	0.9
1994년	0.6	10.5	8,467	7.6	4.2	11.0	23.6	4.5
1995년	0.9	10.0	10,037	0.3	1.0	11.7	15.0	0.7
1996년	7.1	7.4	10,543	6.0	7.0	7.1	0.3	6.1
1997년	5.5	6.2	9,511	3.1	5.7	-3.5	-11.3	2.7
1997년1/4	5.7	5.7	-	4.2	5.1	0.3	-0.2	0.0
2/4	6.6	7.2	-	4.0	6.9	0.2	-1.0	1.0
3/4	6.1	7.5	-	4.0	7.2	-3.7	-12.7	3.0
4/4	3.9	4.6	-	-1.0	4.0	-9.0	-20.2	3.7
1998년1/4	-3.9	-6.4	-	-10.6	-4.3	-23.0	-40.7	-7.7
2/4	-6.0	-10.0	-	-13.0	-12.1	-29.0	-52.4	-13.2
3/4	-6.0	-7.9	-	12.0	-11.1	-20.3	-46.3	-15.0

무역 · 국제수지

연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 액 ¹⁾ (기말)	대미관통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검 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린/달러	
1991년	710.7	10.5	815.2	16.7	-60.0	-03.2	137.3	760.0
1992년	766.3	6.6	817.0	0.3	-17.6	-39.4	171.5	700.4
1993년	822.4	7.3	830.0	2.5	23.2	9.9	202.6	800.1
1994년	960.1	16.0	1,023.5	22.1	-20.6	-30.7	256.7	700.7
1995년	1,250.6	30.3	1,351.2	32.0	-44.4	-05.1	327.1	774.7
1996년	1,297.2	3.7	1,503.4	11.3	-149.7	-230.1	294.2	044.2
1997년	1,361.6	5.0	1,446.2	-3.0	-30.0	-06.2	00.7	1,415.2
3분	120.1	6.0	93.6	-36.0	37.3	36.3	241.5	1,370.0
4분	120.7	5.9	92.5	-36.6	37.9	35.9	307.6	1,330.2
5분	113.1	-3.7	76.5	-37.6	42.1	40.6	343.5	1,410.0
6분	114.7	-7.5	77.5	-36.9	33.1	32.6	370.4	1,305.2
7분	100.4	15.0	71.0	-43.9	30.0	30.1	392.6	1,236.0
8분	97.3	-11.9	71.2	-30.1	27.6	21.7	413.5	1,331.0
9분	100.6	-4.2	72.6	-37.2	30.0	36.4	433.7	1373.6
10분	100.4	-13.1	76.6	-39.2	34.5	27.5	452.7	1319.0
11분	-	-	-	-	-	-	464.7	1246.0

주: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이후는 가동외환보유액

물가·실업·이자율

연월	물가 ²⁾		실업률	제조업 업득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90.1.4=100
	생산자	소비자			M2	MCT		
	전년동기 대비(%)	(%)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1991년	4.7(1.9)	9.3(9.2)	2.3	16.9	18.6	24.5	18.9	667.1
1992년	2.2(1.6)	6.3(4.6)	2.4	16.7	18.4	24.7	16.2	607.2
1993년	1.5(2.0)	4.8(5.8)	2.8	10.9	18.6	22.9	12.6	728.2
1994년	2.8(3.9)	6.2(5.6)	2.4	15.5	15.6	23.5	12.9	965.7
1995년	4.7(3.4)	4.5(4.7)	2.0	9.9	15.5	21.6	13.8	934.7
1996년	2.7(3.5)	4.9(4.9)	2.0	12.2	16.2	21.7	11.9	833.4
1997년	3.9(10.9)	4.5(6.6)	2.6	5.2	19.3	15.3	13.4	652.9
3월	15.1	9.0	6.5	-0.7	13.7	9.5	19.0	523.0
4월	14.9	9.0	6.7	-4.7	13.1	9.1	19.1	444.2
5월	13.5	9.2	6.9	-1.3	14.0	9.4	17.9	366.3
6월	13.3	7.5	7.0	-5.2	10.1	9.2	16.6	313.3
7월	12.0	7.3	7.6	-9.1	19.7	7.4	13.7	327.0
8월	11.0	6.9	7.4	-	20.0	6.6	12.4	312.0
9월	11.4	6.9	7.3	-	21.4	6.7	12.5	312.2
10월	11.7	7.2	7.1	-	27.3	5.7	10.0	-
11월	11.0	6.0	-	-	-	6.7	-	-

주: 2)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 월간기준

산업활동

연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가 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증가 ⁵⁾	국내기 계수주 ⁶⁾	기계류 수입 ⁵⁾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전체	공업용	주거용
전년동기대비(%)										
1991년	9.6	79.5	0.9	11.3	2.2	19.0	22.0	-9.7	6.7	-16.7
1992년	5.9	78.3	5.5	5.3	-5.2	-10.6	9.0	-10.0	-12.4	-7.4
1993년	4.4	77.9	0.5	3.9	12.1	1.1	19.3	24.5	15.2	26.7
1994년	10.9	81.3	0.7	9.3	26.9	37.6	19.5	-1.3	16.0	-0.5
1995년	12.0	81.0	0.0	7.4	15.0	31.5	24.4	1.0	3.3	-1.2
1996년	7.3	81.0	7.0	5.9	16.5	-0.7	21.4	-3.0	-13.2	-2.5
1997년	4.0	79.9	3.2	-1.5	3.3	-22.0	4.7	-0.4	-26.2	2.6
4월	-10.9	68.3	-15.0	-24.0	-47.0	-54.1	-50.6	-50.1	-69.5	-52.6
5월	-10.0	66.7	-16.3	-20.5	-41.7	-56.1	-62.3	-65.2	-77.2	-65.3
6월	-13.2	66.4	-16.0	-26.5	-43.6	-62.3	-45.6	-54.3	-73.1	-50.0
7월	-13.0	63.7	-17.4	-23.7	-26.0	-60.7	-41.0	-63.5	-72.0	-61.0
8월	-11.0	62.9	-16.7	-29.2	-25.7	-51.5	-41.9	-70.1	-73.2	-60.7
9월	0.1	70.0	-11.9	-17.5	-14.7	-52.5	-50.3	-57.6	-61.9	-59.6
10월	-0.0	67.6	-13.6	-25.1	-25.0	-55.1	-51.9	-79.9	-74.2	-81.3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제외 6) 94년 이전 수치는 선박제외

